

노인의 성의식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 영 현

광주보건대학 사회복지과

(요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성생활 유무 및 성의식, 생활만족도를 살펴보고, 또 이 측정치들에서 연령이나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것이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K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남녀 260명이었는데, 모두 조사에 응하는데 문제가 없는 분들이었다. 자료 수집은 2005년 후반기에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관 등의 프로그램에 등록된 분들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의 결과, 성생활을 유지하는 비율이 응답자의 30%를 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이 많았기 때문일 수 있었다. 또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더 젊을수록, 학력이 더 높을수록, 배우자하고만 동거한 자들이 혼자 살거나 다른 사람들과 동거하는 사람보다, 현재 직업 활동을 하는 분이 그렇지 않는 분보다, 건강상태가 더 좋을수록, 월평균 수입이 더 많을수록 응답자들의 성의식이나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던 반면,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는 전혀 없었다. 노인들의 성의식은 생활만족도와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었는데, 생활만족도를 설명해주는 성의식의 변량은 약 12.7%에 해당되었다.

[Key words: 노인, 성의식, 생활만족]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06-701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683-3번지 광주보건대학 사회복지과 한영현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e-mail 주소는 hanyh@mail.kjhc.ac.kr입니다.

서 론

노인들을 상대로 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 노인들의 성(elderly sexuality)에 관련된 것들을 들 수 있다. 즉 노인들을 성욕이 미미하거나 없는 존재(asexual being) 또는 중성적인 존재로 여기거나 성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노인들을 점잖지 못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들이 그 예가 된다(Masters, Johnson, & Kolodny, 1994). 이와 같은 편견은 편견의 당사자에게도 내재화되어 있는 탓에 노인들 스스로도 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점잖은 노인으로 평가될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노인들은 전통사회에서의 유교적 관념 때문에 연장자나 어른의 점잖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가 성적인 관심이나 욕구가 없는 존재처럼 행세해왔다(최준영·한내창, 1995). 이와 같이 노인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 및 노인들의 인식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노인의 성 문제는 은폐·왜곡되어져 왔으며, 이는 노인의 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모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노년기에 성적인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화로 인하여 생물학적 차원의 성기능이 감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체나 정신적 장애가 심하지 않는 한 성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또 성욕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면, 대다수 노인들은 강한 성욕을 느끼며, 성적 상대자가 있는 경우 젊은 시절과 비교하여 빈도나 강도 등이 감소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만족스러운 느낌을 유지하는데 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성욕을 발산하고자 하며, 젊은 시절의 성생활과 비교하여 결코 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느낌을 얻는다고 생각하며, 또 자신들의 성경험에서 오르가즘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가즘을 얻지 못했을 때 젊은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욕구좌절을 경험하고 있었다(Brecher, 1984; Kingsberg, 2002; Masters 등, 1994; Starr & Weiner, 1981).

노인의 성의식과 생활만족

인간의 발달주기를 고려할 때, 노년기의 성은 단순한 신체적 차원의 성이 아니라 기쁨이나 이완, 의사소통, 교류, 친밀감의 공유로서의 성이다 (Steinke & Bergen, 1986). 즉, 노인의 성은 젊은 시절 결혼하기 이전에 이성과의 교제하는 것과 같은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노년기에 경험하는 역할 상실이나 퇴직 등으로 인한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해결해 주는 삶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다양한 노인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노인들의 성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성생활 실태 및 성 의식을 살펴보고, 또 그 성의식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의 성의식이란 개인이 자신의 성생활에 대한 욕구나 태도,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반면 (김경자, 2002),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변화에 잘 대응해 나가면서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Kalish, 1975).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노인들의 성과 관련된 사회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응용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조사대상자 및 조사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재가노인들 중에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했던 260명(남성 120, 여성 140)이었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노인대학 1개소 및 노인 복지관 2개소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셨던 분들이었으며, 일부 조사대상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이었다. 자료 수집은 조사대상자 대다수가 학력이 높지 않아

서 설문지를 읽지 못하신 분이거나 학력이 높아도 잘 보이지 않아서 읽기가 어려운 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자가 설문지 문항을 하나씩 읽어주면서 조사대상자의 반응을 받아 적는 방법을 택하였다. 조사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로 자료수집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던 연구보조원이었다.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비롯한 특성들은 결과 편의 초반부 <표 1>에 소개되어 있다.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얻는 문항들을 비롯하여 그들의 성의식을 측정하는 도구 및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 등이었다. 성의식 및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의식 측정도구: 이 도구는 김정자(2002)가 사용했던 질문지를 수정·보완한 14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문항에 대한 반응형태는 Likert 식 5점 척도[그렇지 않다(1)부터 그렇다(5)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14개의 문항은 7개 문항의 성 태도(홀로된 노인들은 동년배 이성들과의 교제가 필요하다; 노인들에게도 성생활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서도 성적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생활을 자주 해야 한다; 성생활은 젊었을 때나 필요한 것이지 늙으면 필요 없다; 노인이 되어서도 성생활에 대해 누군가에게 터놓고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노인들에게도 성교육이 필요하다; 노인들도 성생활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성 클리닉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4개 문항의 성 욕구 (노인들도 동년배의 이성들을 만나면 성적 매력이나 욕구를 느낀다; 젊은 사람들이 성욕을 느끼는 상황에서 노인들도 똑같이 성욕을 느낀다; 노인이 되어서도 성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는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도 성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 및 3개 문항의 성 중요도(노인들도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 노인들도 성생활을 못하면 살맛이 없고 삶의 의욕도 없다; 노인들에게 성생활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다)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점수가

노인의 성의식과 생활만족

높을수록 성의식, 즉 요구나 태도, 중요도가 더 긍정적이나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93이었다.

생활 만족도 측정도구: 노인의 생활 만족도의 측정은 Havighurst, Neugarten, 및 Tobin(1968)이 소개한 생활 만족도 척도를 우리말로 번안했던 김현철(2000)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도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Likert식 5점 척도[그렇지 않다(1)부터 그렇다(5)까지]의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즉 “자아존중감” 4문항(나이가 들수록 사는 형편이 나아지고 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여유롭게 살고 있다; 내 인생은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이다; 앞으로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아성취감” 5문항(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난날에 살아온 것처럼 살 것이다; 나는 한달이나 1년 내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원했던 대로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현실만족감” 4문항(요즈음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이다; 나는 지금 젊었을 때만큼 행복하다; 최근 몇 년간이 내 인생의 황금기이다; 요즈음 내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따분하고 지겹다), 및 “노화에 대한 태도” 2문항(나는 늙었고 기력이 없다;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젊은 편이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결 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생활 실태

조사대상자의 성별이나 연령, 학력, 건강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소개하였으며, 표에는 각 특성에 따른 성생활 유무의 빈도도 표시하였다.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29.0%(252명 중에서 73명임; 무응답 8명)이었는데, 성생활을 한다는 응답 빈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운동과 같은 활동을 하는 노인이 다른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노인보다, 직업 활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종교 활동 유무는 그와 같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과들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빈도를 고려해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역시 고령자일수록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의 비교 분석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성의식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의식(성태도, 성 욕구, 성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성의식의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p<.001$ 수준에서 더 높은 편이었다. 또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모두 $p<.01$ 수준에서 점수의 차이를 보였는데 나이가 더 젊을수록 성의식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편이었다. 한편 종교 활동 유무에 따른 점수 차이는 전혀 없었다. 동거가족의 형태에 따라서는 세 영역 모두 $p<.01$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배우자하고만 살고 있는 경우가 다른 가족들과 살고 있는 경우보다 성의식의 점수가 더 높았던 반면, 혼자서 사는 경우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성의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직업이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모든 영역의 성의식 점수가 $p<.001$ 수준에서 더 높은 편이었다. 또 단체 활동의 경우에는 종교나 봉사 활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인들보다 운동이나 사교 활동 등을 한다고 답한 노인들의 성의식 점수가 세 영역에서 모두 적어도 $p<.05$ 수준에서 더 높은 편이었다. 역시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그리고 건강 상태가 더 양호하다고 지각할수록 성의식 세 영역의 점수가 적어도 $p<.01$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월수입이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 및 건강지각이 매우 나쁘다고 답한 노

노인의 성의식과 생활만족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생활 실태

특성	구분	n	성생활 유무	
			유	무
성별	남	120	66 (56.9)	50 (43.1)
	여	140	7 (5.1)	129 (94.9)
연령	60-64세	71	36 (53.7)	31 (46.3)
	65-69세	52	15 (30.0)	35 (70.0)
	70-74세	68	13 (19.7)	53 (80.3)
	75-79세	39	6 (15.4)	33 (84.6)
	80세↑	30	3 (10.0)	27 (90.0)
학력	무학	81	7 (8.9)	72 (91.1)
	초등졸	67	13 (19.7)	53 (80.3)
	중졸	44	18 (41.9)	25 (58.1)
	고졸	50	27 (55.1)	22 (44.9)
	대졸 ↑	18	8 (53.3)	7 (46.7)
종교	있다	200	54 (28.1)	138 (71.9)
	없다	60	19 (31.7)	41 (68.3)
동거 가족	아들	68	25 (39.1)	39 (60.9)
	딸	14	2 (14.3)	12 (85.7)
	미혼자녀	18	5 (29.4)	12 (70.6)
	배우자만	77	35 (47.3)	39 (52.7)
	혼자	74	4 (5.4)	70 (94.6)
	기타	9	2 (22.2)	7 (77.8)
단체 활동 참여	종교·봉사	79	19 (25.3)	56 (74.7)
	사교·문화	49	22 (47.8)	24 (52.2)
	운동·기타	15	11 (73.3)	4 (26.7)
	활동 무	117	21 (18.1)	95 (81.9)
직업	유	75	40 (55.6)	32 (44.4)
	무	185	33 (18.3)	147 (81.7)
월평균 수입 (단위: 만원)	10↓	47	5 (11.1)	40 (88.9)
	10-29	71	13 (18.3)	58 (81.7)
	30-49	49	17 (35.4)	31 (64.6)
	50-99	59	21 (38.2)	34 (61.8)
	100-149	18	7 (41.2)	10 (58.8)
	150↑	16	10 (62.5)	6 (37.5)
건강 상태	매우 좋음	20	13 (65.0)	7 (35.0)
	좋은 편	56	23 (43.4)	30 (56.6)
	보통	63	21 (35.0)	39 (65.0)
	약간 나쁨	79	13 (16.7)	65 (83.3)
	아주 나쁨	42	3 (7.3)	38 (92.7)

참고: 성생활 유무 단위는 n (%)이며, 항목마다 결측치가 있었음.

한영현

<표 2> 조사 대상자의 성의식 점수 [$M(SD)$]

특성	구분	성의식			
		성태도	성욕구	성 중요도	전체
성별	남	3.57 (.59)	3.43 (.68)	3.28 (.88)	3.48 (.59)
	여	2.51 (.76)	2.42 (.79)	2.25 (.81)	2.45 (.67)
연령	60-64세	3.37 (.73)	3.23 (.75)	3.11 (.97)	3.29 (.71)
	65-69세	3.19 (.75)	2.99 (.77)	2.74 (.83)	3.04 (.70)
	70-74세	2.83 (.93)	2.74 (.96)	2.59(1.06)	2.81 (.88)
	75-79세	2.55 (.81)	2.66 (.92)	2.54 (.90)	2.57 (.75)
	80세 ↑	2.84 (.89)	2.71(1.09)	2.45(1.08)	2.74 (.89)
학력	무학	2.57 (.85)	2.50 (.88)	2.34 (.96)	2.55 (.77)
	초등졸	2.84 (.76)	2.75 (.85)	2.51 (.80)	2.73 (.71)
	중졸	3.36 (.73)	3.25 (.75)	3.06 (.92)	3.27 (.70)
	고졸	3.34 (.82)	3.27 (.90)	3.11(1.07)	3.30 (.84)
	대졸 ↑	3.78 (.51)	3.43 (.55)	3.48 (.75)	3.61 (.49)
종교	있다	3.03 (.86)	2.91 (.90)	2.76(1.00)	2.96 (.82)
	없다	3.00 (.89)	2.91 (.89)	2.70 (.97)	2.94 (.81)
동거가족	아들	3.14 (.84)	3.08 (.88)	2.77(1.05)	3.10 (.78)
	딸	2.90 (.86)	2.83(1.01)	2.75(1.06)	2.85 (.89)
	미혼자녀	3.14 (.60)	2.87 (.77)	2.68 (.70)	2.93 (.55)
	배우자만	3.33 (.87)	3.21 (.84)	3.08(1.04)	3.28 (.83)
	혼자	2.60 (.77)	2.52 (.84)	2.34 (.77)	2.54 (.69)
단체활동참여	기타	2.84 (.89)	2.58 (.97)	2.92(1.12)	2.78 (.88)
	종교·봉사	2.97 (.88)	2.82 (.89)	2.64 (.97)	2.88 (.83)
	사교·문화	3.34 (.64)	3.13 (.75)	2.98 (.96)	3.23 (.65)
	운동·기타 활동 무	3.60 (.68)	3.46 (.76)	3.38 (.80)	3.51 (.68)
직업	유	2.82 (.89)	2.80 (.95)	2.63(1.00)	2.80 (.84)
	무	3.43 (.73)	3.26 (.79)	3.19(.9708)	3.33 (.72)
월평균수입(단위: 만원)	10↓	2.85 (.86)	2.77 (.90)	2.56(.9408)	2.79 (.80)
	10-29	2.56 (.87)	2.40 (.99)	2.29(1.02)	2.44 (.84)
	30-49	2.81 (.88)	2.86 (.90)	2.64 (.97)	2.83 (.80)
	50-99	3.21 (.71)	3.03 (.77)	2.84 (.88)	3.11 (.63)
	100-149	3.12 (.82)	2.94 (.86)	2.80 (.97)	3.03 (.81)
건강상태	150↑	3.42 (.74)	3.33 (.62)	2.92(1.06)	3.29 (.72)
	매우 좋음	3.69 (.68)	3.48 (.81)	3.60 (.77)	3.60 (.68)
	좋음	3.53 (.73)	3.55 (.85)	3.18 (.97)	3.48 (.74)
	보통	3.31 (.69)	3.17 (.85)	2.97 (.98)	3.21 (.73)
	나쁨	3.29 (.81)	3.20 (.78)	2.96(1.07)	3.21 (.79)
건강상태	매우 나쁨	2.68 (.85)	2.58 (.84)	2.51 (.85)	2.63 (.74)
		2.63 (.83)	2.48 (.86)	2.35 (.94)	2.56 (.76)

인들의 성의식 점수가 특히 낮은 편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생활만족도(자아존중감, 자아성취감, 현실 만족감, 노화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세부적으로는 자아성취감 및 노화에 대한 태도에서만 $p<.001$ 수준에서 그러한 차이를 보였을 뿐 자아존중감이나 현실만족에서는 성차가 없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편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령 차이는 자아존중감이나 현실만족감, 그리고 노화에 대한 태도에서만 $p<.01$ 수준에서 보였던 반면, 자아성취감에서의 연령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니었다. 한편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p<.001$ 수준에서 생활만족도의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종교 활동 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 점수의 차이는 전혀 없었다.

동거가족의 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약간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배우자나 자녀들과 동거할 경우가 혼자서 사는 경우보다 더 높은 편이었으며 ($p<.01$), 자아성취감은 딸과 함께 사는 노인이나 혼자서 사는 노인이 아들이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와 사는 노인보다 더 낮은 편이었고 ($p<.01$), 현실만족감은 혼자서 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낮은 데 비하여 배우자하고만 사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p<.05$), 노화에 대한 태도는 혼자서 사는 경우가 가장 낮은 반면 아들과 함께 살거나 배우자하고만 사는 노인이 $p<.001$ 수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체 활동의 여부 및 내용에 따른 차이도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노인들은 종류에 상관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에 비해서 네 영역 모두 $p<.01$ 수준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다. 활동의 내용별로는 종교나 봉사, 사교, 문화 활동을 한다

한영현

<표 3> 조사 대상자의 생활만족도 점수 [$M(SD)$]

특성	구분	생활만족도				
		자아 존중감	자아 성취감	현실 만족감	노화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남	2.87 (.74)	2.89 (.69)	3.04 (.71)	3.41 (.81)	3.01 (.53)
	여	2.70 (.84)	2.39 (.66)	2.84 (.79)	2.87 (.93)	2.66 (.63)
연령	60-64세	3.00 (.67)	2.71 (.66)	3.10 (.61)	3.60 (.78)	3.01 (.46)
	65-69세	2.98 (.71)	2.70 (.68)	3.00 (.76)	3.37 (.80)	2.96 (.58)
	70-74세	2.78 (.77)	2.55 (.72)	3.02 (.79)	2.88 (.90)	2.80 (.63)
	75-79세	2.51 (.84)	2.53 (.79)	2.72 (.84)	2.76 (.83)	2.58 (.65)
	80세 ↑	2.29 (.96)	2.56 (.79)	2.50 (.72)	2.61 (.93)	2.49 (.65)
학력	무학	2.49 (.84)	2.37 (.72)	2.61 (.79)	2.65 (.92)	2.50 (.61)
	초등졸	2.81 (.81)	2.57 (.65)	3.01 (.71)	3.06 (.87)	2.83 (.56)
	중졸	2.99 (.65)	2.72 (.60)	3.13 (.61)	3.52 (.74)	3.01 (.42)
	고졸	2.90 (.75)	2.80 (.75)	3.01 (.78)	3.44 (.84)	2.99 (.60)
	대졸↑	3.20 (.63)	3.18 (.72)	3.38 (.61)	3.61 (.68)	3.30 (.50)
종교	있다	2.82 (.81)	2.64 (.71)	2.95 (.80)	3.15 (.92)	2.85 (.63)
	없다	2.64 (.75)	2.56 (.76)	2.85 (.62)	3.00 (.90)	2.72 (.54)
동거 가족	아들	2.90 (.85)	2.82 (.73)	2.88 (.75)	3.34 (.92)	2.94 (.59)
	딸	2.84 (.79)	2.36 (.66)	2.92 (.86)	3.07(1.04)	2.73 (.57)
	미혼자녀	3.00 (.66)	2.72 (.73)	3.00 (.63)	3.27 (.69)	2.93 (.54)
	배우자만	2.95 (.68)	2.70 (.64)	3.16 (.68)	3.32 (.75)	2.97 (.52)
	혼자	2.46 (.81)	2.37 (.68)	2.71 (.79)	2.76 (.98)	2.55 (.64)
단체 활동 참여	기타	2.55 (.93)	2.71(1.06)	3.05 (.89)	2.50 (.97)	2.73 (.77)
	종교·봉사	3.01 (.75)	2.71 (.67)	3.00 (.72)	3.14 (.82)	2.93 (.57)
	사교·문화	3.06 (.68)	2.95 (.75)	3.14 (.81)	3.61 (.85)	3.12 (.61)
	운동·기타 활동 무	2.80 (.59)	2.58 (.59)	3.27 (.33)	3.92 (.33)	3.08 (.31)
직업	유	2.96 (.67)	2.81 (.70)	3.06 (.60)	3.62 (.78)	3.03 (.48)
	무	2.71 (.83)	2.55 (.71)	2.88 (.81)	2.92 (.89)	2.74 (.63)
월평균 수입 (단위: 만원)	10↓	2.60(1.00)	2.53 (.86)	2.64 (.85)	3.07(1.01)	2.65 (.75)
	10-29	2.54 (.79)	2.40 (.71)	2.79 (.75)	2.72 (.84)	2.59 (.59)
	30-49	2.65 (.68)	2.61 (.64)	2.82 (.71)	3.04 (.81)	2.75 (.50)
	50-99	2.96 (.62)	2.80 (.62)	3.16 (.65)	3.35 (.86)	3.02 (.47)
	100-149	3.19 (.60)	2.94 (.74)	3.29 (.78)	3.66 (.86)	3.20 (.54)
건강 상태	150↑	3.60 (.40)	2.88 (.51)	3.45 (.39)	3.81 (.66)	3.35 (.28)
	매우 좋음	2.93 (.75)	2.83 (.70)	3.17 (.70)	3.67 (.85)	3.06 (.54)
	좋음	3.12 (.74)	3.01 (.67)	3.34 (.70)	3.63 (.78)	3.22 (.51)
	보통	2.81 (.69)	2.71 (.67)	2.87 (.60)	3.30 (.75)	2.86 (.47)
	나쁨	2.73 (.81)	2.51 (.66)	2.82 (.80)	2.87 (.81)	2.69 (.60)
	매우 나쁨	2.31 (.82)	2.08 (.57)	2.55 (.75)	2.36 (.91)	2.31 (.55)

노인의 성의식과 생활만족

는 응답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아존중감과 자아성취감이 높은 편이었던 반면, 운동을 한다는 응답자들은 현실만족감과 노화에 대한 태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직업이 있다는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보다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성취감, 노화에 대한 태도 점수는 적어도 $p<.05$ 수준에서 높은 편이었다.

월평균 수입에 따른 차이는 수입이 많을수록 네 영역 모두 대체로 점수가 적어도 $p<.01$ 수준에서 높은 편이었지만, 소득 수준을 월 50만원 정도로 점수의 고저가 구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월평균 소득을 최소한 50만원 정도라고 응답한 노인들은 그 이하로 응답한 노인들보다 네 영역 모두 점수가 높았다. 또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노인들일수록 생활만족도가 전반적으로 $p<.001$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성의식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성의식이 생활만족도를 어느 정도 설명해줄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의식의 세 가지 영역을 독립변인 그리고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인의 세 가지 영역과 종속변인과의 상관관계는 모두 $p<.001$ 수준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독립변인의 세 영역을 단계나 위계가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2 값이 .127로 나타났다 ($F=10.02$, $p<.001$). 그러나 세 영역의 내용 중에서 생활만족도를 의미 있게 설명해주는 것은 성 태도 하나였으며($\beta=0.32$, $p<.01$), 성욕구($\beta=-.02$, $n.s.$)나 성 중요도($\beta=.06$, $n.s.$)는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데 큰 영향력이 없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조사에 응할 수 있을 정도로 심신이 건강한 260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성생활 유무 및 성의식, 생활만족도를 살펴보고, 또 이 측정치들에서 연령이나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것이었다. 성생활

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0%를 넘지 못했는데, 특히 여성의 절대 다수가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답했다. 또 고령자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응답률이 낮았는데, 이와 같이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던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조사한 항목이 아니었지만,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여성노인들이 많았기 때문일 수 있었다.

성의식에 대한 반응 양상도 성생활 유무에 대한 것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더 젊을수록, 학력이 더 높을수록, 배우자하고만 동거하거나 아들 가족과 동거한 자들이 혼자 살거나 딸 가족과 동거하는 사람들보다, 현재 직업 활동을 하는 분이 그렇지 않는 분보다, 건강상태가 더 좋을수록, 월평균 수입이 더 많을수록 응답자들의 성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반응 양상도 성생활이나 성의식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경제적 수준이 더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또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은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김재돈·남철현, 1997; 허정무, 1993). 한편 성의식이나 생활만족도는 종교 유무와 전혀 관련이 없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실감을 경험한 노년기에 종교 활동에 심취하면서 심리적 안정과 생활 만족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상치된다 (김미숙·박민정, 2000). 그와 같은 차이를 보인 이유는 아마도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종교 활동 유무만 묻고서 종교 활동을 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그 활동에 대한 의미 부여 정도 등을 묻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한편 노인들의 성의식과 생활만족도의 관련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생활만족도를 설명해주는 성의식의 변량은 약 12.7%에 해당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수단 중 하나로 그들의 성의식을 변화시켜주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의 언급을 금기시했던 유교적 전통사회에서 성장해왔던 노인들이 근대에 와서도 성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서 적극적으로 변하기는 쉽지 않다 (김현철, 2000; 최준영·한내창, 1995). 이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노인들의 성에 대한 태도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점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자 (2002). *여성노인의 성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 박민정 (2000). 종교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년학*, 20 (2), 29-47.
- 김재돈 · 남철현 (1997).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협회지*, 23 (2), 173-192.
- 김현철 (2000). *노인의 성생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준영 · 한내창 (1995). 노인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복지정책. 광주사회조사연구소 편, *지역사회와 복지문제* (pp. 273-279). 광주: 도서출판 월산.
- 허정무 (1993). 교원의 정년퇴직 준비과정과 퇴직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편, *유럽의 노인복지*. 서울: 흥익제
- Brecher, E. (1984). *Love, Sex and Aging*, Boston: Little, Brown.
- Havighurst, R., Neugarten, B., & Tobin, S. (1968). Disengagement and patterns of aging. In B. Neugarten (Ed.), *Middle age and aging* (pp. 161-17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lish, R. (1975). *Adulthood: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Berkeley, California: Cole Publishing Co.
- Kingsberg, S. (2002). The impact of aging on sexual function in women and their partner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1, 431-437.
- Masters, W., Johnson, V., & Kolodny, R. (2004). *Heterosexuality*. New York: Harper Collins.
- Starr, B., & Weiner, M. (1981). *The Starr-Weiner report on sex and sexuality in the mature years*. New York: McGraw-Hill.
- Steinke, E., & Bergen, M. (1986). Sexuality and ag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2 (6), 6-10.

Sexuality and Life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Koreans

YoungHyun Ha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wangju Health College

Kwangju, Korea 506-70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levels of sexual awareness and life satisfaction from the 260 community-dwelling elderly Koreans. The levels were analyzed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The major findings were that the levels of sexual awareness and life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respondents'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finance, employment status, cohabitation status, subjective health, and activity levels; at the same time, the sexual awareness level was a significant predictor variable to the life satisfaction.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promoting social welfare benefits for the elderly.

(논문접수일: 2006년 10월 4일)

(수정논문접수일: 2006년 11월 18일)

(논문게재승인일: 2006년 11월 28일)